

속성과 성숙의 시간... 트와이스 지효, 실존의 증거 'ZONE'

JYP 연습생 10년·트와이스 활동 8년 합친 18년 결과물
다음달 2일 자 '빌보드 200' 10위로 데뷔 할 것으로 예상

"흘러간 내 시간의 의미 / 그대로 아름답길
J, ♪"(지효 '룸(Room)' 중)
숙성(熟成)과 성숙(成熟)의 시간.
K팝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TWICE) 리더 겸 메인보컬 지효(박지효)의 첫 솔로앨범인 미니 1집 '존(ZONE)'은 음반을 내기 위해 낸 음반이 아니다. 2005년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입사해 10년 간 연습생 생활을 했고, 2015년 10월20일 트와이스로 데뷔한 그녀는 정확하게 솔로 데뷔하는 법을 안다.
지효가 솔로 앨범을 낸다고 했을 때, 타이틀곡 장르를 당연히 발라드로 예상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 그건 트와이스 활동과 자연스레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자, 지효의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편이었으니까.
하지만 퍼포먼스에도 방점을 찍는 지효의 선택은 옳았다. 힘의 강약 조절이 인상적인 세련된 그루브의 타이틀곡 '킬링 미 굿(Killing Me Good)'은 인위적이지 않고, 그녀의 시간을 담아낸 듯 문학적이다. "내 안에 들리는 소리만 듣고 그대로 따라갈래"라는 디 아시안소울(The Asiansoul) 박진영의 관능적인 노랫말이 지효의 그런 시간 세공을 돕는다. 미국 가수 겸 작곡가 멜라니 폰타나 등이 문체 만들어낸 선율은 기술적으로 위태로우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앨범에 실린 다른 수록곡들 역시 지효의 다양한 그루브 색을 보여준다. 지효가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미국 래퍼 24케이골

든(24kGoldn)이 협업한 '토크 어바웃 잇(Talkin' About It)'은 강단이 넘치고, 지효가 단독 작사한 노래이자 R&B 팝 장르로 라틴 풍 코러스가 가미된 '클로저(Closer)'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긴다.
퓨처 R&B 장르의 '위싱 온 유(Wishing On You)'는 청자를 몽환적으로 부유하게 만든다. 지효가 작사·작곡에 참여하며 싱어송라이터 헤이즈와 협업한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R&B '돈크 워너고 백(Don't Wanna Go Back)'은 헤이즈 특유의 쓸쓸한 분위기를 지효다운 성숙함으로 소화하며 애절하면서 맵시 있는 그루브를 만들어냈다. 헤이즈는 '크라이 포 미(CRY FOR ME)', '비하인드 더 마스크(BEHIND THE MASK)'로 앞서 트와이스와 호흡을 맞췄는데 이 팀과 차진 협업을 또 증명했다.
지효가 역시 작사·작곡에 참여한 '룸(Room)'은 이번 앨범 중 가장 근사한 트랙이다. 시위를 여행할 때 더위를 식히는 산들바람 같은 스트링이 인상적인, 목가적인 미드템포의 이 곡은 희망을 노래한다. 그런데 막연한 공경이 아닌 주체성이 담긴 밝음으로 지효의 지난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있다.
앨범의 트랙 배치도 서사적으로도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또 문학적이다. 마지막 트랙 '나이트메어(Nightmare)'는 트와이스의 다섯 번째 월드투어 '레디 투 비(READY TO BE)'

개인 무대에서 선공개한 기묘한 분위기의 노래다. 마찬가지로 지효가 작사·작곡했는데 강해져서 흑화한 악몽 속 주인공이 되겠다는 대담함이 돋보인다.
솔로 아티스트로서 대접을 받았다는 아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단단하고 확실히 풀어냄으로써, 자연스레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 지효가 이번 첫 솔로 앨범을 통해 이뤄낸 성취다. 현재 글로벌 음악 신에서 유행하는 음악 장르를 어느 정도 따르면서도, 완전히 타협하지 않고 자기 것을 해내는 똑실. 오랜 시간을 버텨낸 K팝 스타 아이돌이 진정한 솔로로 거듭날 때 애써 재주를 부리지 않고 정확히 노래를 쓰고 부르며 된다는 걸 지효는 보여준다. 그렇게 지효의 실존은 그녀만의 영역, 즉 '존(Zone)'으로 증명된다. MBC TV 예능 '나 혼자 산다', 가수 김중국의 웹 예능 '집중국'에선 지효가 평소와 얼마나 쉬지 않고 자신을 단련해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효의 '존'은 9월2일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10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트와이스 첫 솔로 주자로 나왔던 나연이 솔로 미니 1집 '아이 엠 나연(IM NAYEON)'으로 '빌보드 200' 7위에 오르며 해당 차트 K팝 솔로 여성 가수 최고 순위를 썼다. 예상대로 지효가 해당 차트에서 10위를 차지하면, 트와이스는 K팝 그룹 중 처음으로 멤버 두 명이 솔로로서도 톱 10에 진입하는 기록을 쓴다. 트와이스의 해당 차트 최고 순위는 2위다. 이번 주 '빌보드 200' 톱10 결과는 이르면 27일(현지시간) 빌보드닷컴 기사를 통해 예고된다.
뉴스



츠마부키 사토시 "이 영화는 절 구원했어요"



"이 영화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배우 츠마부키 사토시(妻夫木 ·43)는 새 영화 '한 남자'(8월30일 공개)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는 이 작품을 본 관객 한 명 한 명이 모두 '이건 나의 이야기'라고 느꼈으면 한다고 했다. "내겐 여러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봐도 정말 내가 싫은 내가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가 있기도 하죠. 우리에게 이처럼 다양한 모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제 삶을 구원했다고 봐요."
"한 남자"는 25일 국내 첫 공개됐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돼 일부 한국 관객을 만나기는 했지만 정식 개봉은 1년이 지난 뒤에 하게 됐다. 츠마부키는 이날 언론 기자회견 후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한국에는 자주 오는 편이지만 올 때마다 설레는 기분이 든다"며 "한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이 작품이 또 다른 나라로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은 젊은 영화감독인 이시카와 케이 감독이 연출했다. 츠마부키와 이시카와 감독은 이시카와 감독 데뷔작 '우행록:여리석은 자의 기록'(2019)에서 호흡을 맞춘 뒤 다시 한 번 손잡았다. '한 남자'는 변호사 키도가 자신이 아닌 사람으로 살았던 한 남자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츠마부키가 키도를 연기했다. 올해 초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감독·남우주연·여우조연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며 완성도를 인정 받았고,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초청되는 등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 남자"는 히라노 케이치로 작가가 2018년 내놓은 동명 소설을 영화화 한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히라노 작가는 1999년 '일식'으로 데뷔하며 '미시마 유키코의 재림'이라는 극찬을 받은 일본 대표 소설가 중 한 명. 츠마부키가 "나에게 여러가지 모습이 있다"고 한 것도 히라노 작가가 주창해온 이른바 '분인(分身)주

의'를 얘기한 것이다.
츠마부키는 "사람에게 다양한 얼굴이 있다는 게 히라노 작가가 말한 '분인주'라며 "그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키도라는 인물을 특정한 캐릭터로 규정하지 않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때 그때 얼굴이 달라지는 인물로 그려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키도가 종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야 관객 역시 진정한 키도의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 나아가 나의 진짜 모습을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거라고 봤다"고 말했다.
츠마부키는 '위터보이즈'(2002)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2003) 등으로 이미 2000년대 초부터 한국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필모그래피 초반엔 청춘 스타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후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성공, 현재는 역할에 제약이 없는 배우로 평가 받는다. '한 남자'로는 일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예전에 내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다. 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딴 사람 같다. 이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우로서 동안 외모 때문에 겪는 불편함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다. "제가 올해 43살이예요. 제 나이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웃음) 더 어른스럽고, अच्छe 같은 모습이랄까요.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게 기쁠 때도 있지만 배우로서 서글플 때도 있죠. 배우에게 마이너스니까요."
츠마부키는 한국영화에 출연하는 게 목표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2008년 한·일 합작 옴니버스 영화 '도쿄!'에 나왔고 2009년엔 한·일 합작 영화 '보트'에서 배우 하정우와 호흡을 맞춘 적도 있지만, 한국영화에 출연한 적은 없다. 츠마부키는 "하정우 배우와 다시 연기하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며 "그때는 작품 내에서 서로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고 했다. 츠마부키는 '보트' 이후 하정우와 관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 이번에도 하정우를 만나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정민과도 연기해보고 싶다고 했다. "수리남"에서 그의 열정적인 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배우 츠마부키 사토시가 어떤 사람이나 보다는 연기한 캐릭터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제가 연기한 캐릭터를 보고 배우마져 싫어졌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영화가 없는 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더 좋은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도 더 정진하겠습니다."

이경실, 아들과 인연 끊은 사연 "손주도 안봤지만..."



개그맨 이경실(57)이 아들 손보승(24)이 숙도위반 했을 때 심경을 밝혔다.
이경실은 지난 26일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1년 반 만에 나왔다. 그동안 동치미에서 '나와 달라'고 하는데, 민망하고 장피했다. 보승이가 사고를 쳤다. 속 끓는 사연"이라며 "내 자

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를) 책임진다고 하면 멋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데 자식 일은 그렇게 안 되더라. '인연 끊자'고 했고, 결국 아이를 낳은 지 4개월 때까지 안 봤다. 남편하고 딸이 애 사진을 보내도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주변에 아직 손자, 손녀를 본 친구들이 없다. 제작년 7월쯤 보승이가 스톱 세 살 때 방을 얻어줬다. 배우 일 안 할 때 야간 택배를 했는데, 잠을 잘 못 자고 운전하는 게 걱정 돼 허락해줬다"며 "잠만 자는 방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 방이 됐다. 아침에 밥 먹고 설거지 하는데, 아들이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며 눈치를 보더라. 느낌이 싸해 '아기 가졌?'라고 물었다.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스톱 셋인데 낳았?'이라고 하니 '아기 심장 소리를 들어요'라고 하더라. '엄마 심장 떨어지는 소리는 안 들리냐'며 육두문자가 나왔다"고 회상했다.
이경실은 "어린 애들이 아이를 갖고 부모 책

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임을 못하는 게 염려스러웠다"면서도 "며느리가 애를 잘 키워 안심이 됐다. 4개월 때 식사 초대했다. '어서 와라' 잘 살면 된다'며 안아줬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더라. 둘이 싸우면 친정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고 했다. 같이 육해 주겠다고 했다. 한 번은 싸워서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다. 이틀 자고 사흘째 보승이가 와서 갈 줄 알았는데 열을 있었다"고 귀띔했다.
"5-6일째에 '안 불편하냐'고 하니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다'고 하더라. 열흘째가 어버이날이었는데, '너희가 가는 게 선물'이라고 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 집이 넓고 에어컨 빵빵해서 '호캉스' 느낌이 나는 것 같다. 애 맡기고 영화 보러 가더라. 다 좋는데 1박2일만 있어야"고 했다.
손보승은 지난해 4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2021년 12월 비연연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밝혔으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상태다. 손보승은 2013-2016년 JTBC 예능물 '유사시 상팔자'에 이경실과 함께 출연했다. 2016년 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로 데뷔했다. '구해줘2'(2019) '내가 가장 예뻤을 때'(2020) '펜트하우스2'(2020-2021) '얼어죽을 연애파워'(2022) 등에 출연했다. TV조선 오디션 '내일은 국민가수'(2021)에도 도전했다.

르세라핌 日 뜨자 팝업스토어·카페 '들썩'

현지 싱글 2집 발매·6만명 규모 단독 투어 진행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이 첫 단독 투어와 일본 싱글 2집 '언포기븐(UNFORGIVEN)' 발매를 기점으로 일본 주요 도시들을 들썩이고 있다.
25일 소속사 쏘스뮤직에 따르면, 르세라핌은 지난 21일부터 도쿄의 미야시타 파크(MIYASHITA PARK)와 협업 중이다. 르세라핌이 실제 착용한 의상 전시부터 포토 부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 23일부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팝업 스토어 '언포기븐' 역시 인기몰이 중이다. 도쿄 제95 빌딩과 오사카 시부야109 아베노점에서 일본 싱글 2집과 투어 공식상품을 만날 수 있다.

쏘스뮤직은 "순식간에 방문 예약이 마감되고 상품들이 연이어 매진될 정도로 이번 팝업 스토어에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내달 7일 도쿄, 8일 오사카와 나고야에선 '르세라핌 스페셜 카페'가 문을 연다. 르세라핌은 올 4월 한국에서 연 첫 단독 팝업 스토어에서 디지털트뷰로 호평을 들었다. 일본에서도 멤버들의 개성을 담은 오리지널 메뉴를 준비할 것이라고 쏘스뮤직은 전했다.
르세라핌은 지난 23일 '언포기븐'을 발매하고 현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음악방송 출연 외에도 인기 잡지 '안안(anan)', '레이(Ray)'의 최신호 표지를 장식했다.



또 지난 23-24일 일본 나고야 히논가이시홀에서 현지 첫 단독 투어의 문을 열었다. 르세라핌은 오는 30-31일 도쿄, 내달 6-7일 오사카에서 투어를 이어 간다. 3개 도시 공연의 모든 회차(6만여 석) 티켓이 금세 매진됐다.
내달 2일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패션 축제 '제37회 마이니비 도쿄 걸즈 컬렉션 2023 어텀/윈터(AUTUMN/WINTER)'에도 초청받았다.